主 題

病 院 司 牧

********* 제 20 차 세미나 초록 *********

演 題

병원에 있어서 수녀의 사목활동실제

— 나의 병원사목 —

김 스테파니아 수녀

<대구 파티마병원 원목실 >

Nun's Apostolic Activities in Hospital

Sr. Stephania Kim

Fatima Hospital

TAEGU

이번 가톨릭병원 협회에서 있게 될 추계 쎄미나를 위해 무슨 말을 좀 해 달라는 청탁이 왔다.

사정에 의해 서울로 떠나려던 준비중이라서 확답은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병원전교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몇명의 장님들이 코끼리 한마리를 어루만지며 나름대로의 느낀 점들을 서로 주고 받았던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달리는 열차의 창구를 통해 펼쳐지는 넓은 들은 온통 황금 물결치는 이삭들이며, 바라다 보이는 과수원의 울긋 불긋한 열매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결실을 과시하는듯 싶었다. 빨리 달리는 열차 속에서도 인상깊게 들어온 한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한 농부가 혼자서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농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행동의 반복……, 옆에서 도와주는 누구도……, 얘기를 주고 받을 대상도 없었지만 애매한 나락들만을 내려치고 있는 장면 말이다. 그 장면이 지나쳐 버린후에도 내 머리엔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어쩔수 없었다. 이때 그 농부와 나를 놓고 얼마동안 생각해 봤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만 계속 반복하여 도리깨질 (타작)하는 그 농부에게 관심이 갔던 것은 병원전교를 처음 시작했을때를 연상해서 그 농부에게 대한 동정에서 였는지도 알 수 없다.

전교는 본당에서나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고 또 본당전교도 해 보기는 했지만 병원전교를 책임맡고 생각하니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전교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퍽 망서려지기도 했다. 그래서 어른에게 조건을 붙여서 말씀드렸다. 수도자 답지도 않게 말이다. 하는데 까지 해보겠지만 계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다고 했다.

일단 병원에 나가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무엇도 없었다. 다만 원장님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세붙이고 병자 방문 하라는 지시는 받았었다.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는것 같고해서 무턱대고 병실마다 방문하기로 했다. 오라고 초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하자니 처음에는 멋적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짝이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농부와 같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따름이다. 이와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병원에서의 전교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수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보이는 것같았다. 병원전교를 하면서 이런말을 들었다. 나를 생각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목실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바쁘다고 하느냐?〃 이런 분들에게 나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수 있겠소?〃 하고 묻는 나타나엘에게 필립보가 하신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다. 〃와서 보시오〃라고(요1 : 46)

쑥스럽기만 하고 멋적게만 생각했던 날마다의 병실에서의 환자방문을 통해 나는 힘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또 환자를 위한다는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나는 배웠고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할 일없이 기웃거리는 것과 같은 이 방문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용기를 갖게 해주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음을 방문할 때마다 실감하게 된다. 처음엔 원목실에서 혼자일 했지만 지금은 일반 평신도 한분이 같이 수고 해주시고 계신다.

요즈음 들리는 말은 병원전교는 특수사목이라고들 한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병원전교가 그리 간단하고 또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각양 각색의 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이며 찡그린 얼굴들, 때로는 위로도 해야되지만 경우에 따라선 엄하게도 대해줘야 한다. 아니면 운명 직전에 환자 옆에서 임종을 도와야 할때가 많다. 그러나 수녀님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치도 못한것 같다. 나도 혼자서 일하고 있었을때 여러면으로 도움을 청해본 경험으로 보아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특수사목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름이야 어쨌든 각 사람이 받은 사명은 제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할 때에만 궂은 일과 못한일 안에서도 보람을 갖게되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생활이라야 이웃과도 참된 기쁨을 나눌수 있겠고 또 우리들의 생활로 주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자의 병과 심리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간호과 수녀님들이 병원전교의 적임자라고 생각된다.

이미 오랜 병원 사목으로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신통한 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외람되다고 생각은 되지만 병원전교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는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겠다. 환자를 방문한다고 병이 즉각에 완치되는 것도 아니요, 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무엇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희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를 듣게된 보호자들의 마음은 초조함과 절망속에서 당황하게 된다. 이런때엔 환자를 찾아가는 대신 보호자와 같이 앉아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에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때문에 원목실이 있게 마련인것 같다. 이렇게 얼마동안 얘기를 한후에 같이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만일 그 보호자와 환자가 아무 종교도 없을 경우엔 대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 반응이 좋을때엔 환자에게도 사대교리를 설명한후에 원의가 있을때 대세를 주고 있다. 어떤 경우엔 환자 자신은 대세받을 원의가 있지만 보호자측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가족중에 신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신자라는 분이 환자에게 대세받게 하는 것을 꺼려할때는 딱 질색이다. 믿지않는 사람이 반대 한다는 것은 대세받으면 죽는다는 교회바깥 사람들의 여론으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또 대세는 죽을 위험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도 남의 속은 모르고 대세받았기 때문에 죽었다고들 한다. 혹은 대세받고도 뜻밖에 회복되어 기쁨에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퇴원한 후 교회를 찾기도 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운명했을 경우에도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신앙의 생활로 변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도 잘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조건대세에도 어느정도 무관 할 수 없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 보기

로 하겠다. 5.6년전에도 온전히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오직 보호자에게만 승락을 받은후 조건대세를 주었었는데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고 그 후에 온가족이 열심으로 성당에 나가 8남매와 노모 한분 모두열한명이 영세를 받고 모범적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동리에서 제일 말썽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첫째로 손꼽히는 모범적 가정이라고들 한다. 마치 맞게 바오로란 세례명을 주었었는데 모두들 사오로가 바오로로 변했다고들 한다는 것을 들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실이다. 37세된 부인이 간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상태가 악화되어 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출혈도 심했고 수혈도 많이 필요했다. 한때는 급하게 되어 우리 수녀원에서 7.8명의 수녀들이 헌혈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보호자 되시는 남편은 어느모로 보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신사였다. 그래도 환자의 딱한 현실앞에 나는 고 남편에게 무슨말을 건네야 좋을지 엄두가 안 생겼다. 오직 만나게 되면 목례를 하거나 아침에 들어갔을때엔 밤동안의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문의 했을뿐, 아니면 환자옆에서 묵묵히 기도만 잠깐 드리고 나오는 정도로 몇날을 지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기우러져 가기만 했고 의사 선생님들께선 만일을 생각하셔서 보호자의 마음 준비를 위해 크게 기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 환자는 혼수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하루는 나도 용기를 내서 그 보호자를 원목실로 모시고 나왔다. 몇마디로 수고가 크시다는 것을 인사 드린후 종교의 유무를 물었다. 자기는 아무 종교도 없고 다만 안 사람만 예배당에 다녔지만 세례는 받지 못했고 권면에 못이겨 자기도 두 세번 교회에 따라 다녔지만 지금은 중단했는데 종교를 꼭 하나 택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대답이었다. 이때 내 마음은 날아갈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기회를 놓칠세라 천주교회에도 세례가 있다는 것과 대세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조건대세에 대한것도 설명했다. 본인의 원의에 달린것이지만 환자의 지금 상황에서 의사를 들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대신 보호자의 의사를 묻는 것이고 만일 환자가 의식 회복이 있을 경우엔 환자에게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당에 같이 나올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밝혔더니 보호자는 아주 기쁘게 받아 들였으며 대세줄 것을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중환자실로 같이 가서 혹시나 싶어서 환자 귀 가까이서 교리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내가 환자의 입장이 되어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다음 대세를 주려고 보니 환자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의식 회복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물어 보았더니 그때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대세받은 3일째 되던 날부터 환자의 상태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부동자세였던 환자는 몸을 요동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변화가 왔으며 눈도 뜨고 주위의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할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이 돌아왔고 정상적 상태로 회복되어 보호자는 물론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도 모두 큰 기쁨으로 수고의 보람을 가졌다. 좀 더 호전된 다음 수술까지 받고 지금은 퇴원하여 집에서 쉬고 계신다.

지난 9월5일부터 시작된 예비자 교리반에 엄마와 중3학년 아드님을 제외한 아빠와 3남매는 소속본당으로 빠짐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계신다는 그 본당 수녀님의 말씀이었다. 이 가정을 방문했을때 또 한가지 재미 있었던 것은 여중1학년생과 국민학교 5학년 딸과 국민학교 3학년 아들 모두가 교파가 다른 개신교에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퇴원해서 집에 가셨을때 저마다 엄마손을 붙잡고 하는말이, 걸어 다닐수 있게 되면 꼭 자기네 교회로 나가셔야 한다고들 했단다. 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어린이들인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퇴원하신후 어느 일요일 오후에 그 댁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아빠께서 4남매 모두 불러들이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 이제부터 모두 천주교회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자 그 4남매는 모두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다 보았을 뿐 아무말도 없었다. 그날 마침 그댁 구역 본당 전교수녀님과 동반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리시간을 알려줄 수 있었다. 남편이 교리시간에 다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벌써 천주교회로 나갔어야 했었는데…"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본당전교는 구역에 제한을 받게 마련이지만 병원전교는 본당과 교구를 초월해서 할수있는 사목인것 같다. 시간만 있으면 입원환자 한사람씩 대

< 5 면에 계속 >

성행하는 이 세대에 정신세계를 갈망하게 하고 정신세계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사명입니다. 병원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취급하는 곳이니 만큼,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자신의 허약함을 인식시키며 하느님께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데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우리의 교육적 배려를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역시 일종의 자기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톨릭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원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연구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던지고 갖가지 주문만을 하고 보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대한 이해심에 신뢰를 걸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육체적 영신적 복지를 증진시켜 주게 되도록, 모든요긴한 배려를 다하실 줄로 믿으며, 이 세미나의 성공을 빕니다. *

< 12 면에서 >

화를 해보면 천주교회와 관련없는 사람이 몇 안되는것 같다. 냉담자 아니면 조당중에 있던가 아니면 관면혼배는 했었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거나 영세준비를 하다 타 지방으로 전근했던 관계로 마음은 있어도 안면이 없어 못나간다는 사람, 모두 열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런 사정들을 알게되면 할 수 있는대로 소속 본당으로 연락을 해야 될줄 알면서도 할때도있지만 못하는 때도 많다.

병원전교를 하게 된다는 발표를 원장님께서 공동체앞에 말씀 하셨을때 어느 수녀님 한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다. 즉 아직 젊은데 병원전교를 시키느냐? 고 말이다. 그 수녀님께선 나를 혹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젊게 보여서 하신 말씀인지 나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병원전교에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대꾸 할 수 없었다. 그 얼마전에는 노인 수녀님 한분이 중환자가 있을때 대세를 주셨고, 또 준비도 열심으로 시키셨으며 전교열이 보통 아니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국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병원전교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 병원전교는 누가 할 수 있나? 나름대로 말씀 드린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수녀님이라면 노인이건 젊은이건 환경에 따라서 저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직 병을 겁낸다든가 죽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생각할 문제도 되겠지만, 저는 누가 주사 맞는 것도 못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다. 수녀는 수도복 자체가 벌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를 마음의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 주고 받는 것을 흔히 듣게도 된다. 이상한 것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어쩌면 약하디 약한 여자들의 힘을 빌려서 당신나라 백성들을 늘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떨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약한 여자들 가운데 저를 또한 불러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